



보도시점

2026. 10. 22.(목) 15:00

배포

2026. 10. 21.(수) 16:00

국가AI전략위, 포항서 '제조 현장부터 AI 데이터센터까지' 경북 AI 생태계 살펴

- 하정우 부위원장, 강원·대구에 이어 포항 찾아 나흘간의 지역 현장 행보 마무리
- 경북AX랩·KIRO 안전로봇실증센터 방문해 제조 AI 실증과 안전로봇 현장 살펴
- 포스텍 학생들과 '청년 AI 정책 소통간담회' 갖고 AI 연구·창업 환경에 대한 의견 들어
- 포항 Neo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찾아 지역 AI 인프라 추진 상황 들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10월 22일(목) 경북 포항을 찾아 포항테크노파크 경북AX랩,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안전로봇실증센터, 포스텍, 포항 Neo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강원과 대구에 이은 연속 현장 행보이자 대구·경북 1박 2일 일정의 마무리로, 지난달 대구·경북(구미·포항)이 로봇 분야 첫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로봇과 제조 AI 기반을 넓혀 가고 있는 경북의 AI 생태계를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항테크노파크] 경북AX랩 방문 및 제조 AI 실증 사례 청취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AX랩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경북AX랩은 영남권 5개 시·도가 함께하는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의 거점으로, GPU 서버실과 데이터 분석실 등을 갖추고 철강 등 지역 제조기업의 AI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급기업 18개사와 수요기업 12개사가 참여한 10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품질관리·탄소배출량 예측 등 지역 제조기업의 AI 실증 사례와 경북의 AI 클라우드팜·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을 듣고, 완성차의 자율주행·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쓰이는 스트라드비전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SVNet' 시연을 참관하였다.

■ [KIRO] 안전로봇실증센터 방문 및 AI 로봇 실증 현장 시찰

이어 홍해읍의 KIRO 안전로봇실증센터를 찾아 휴머노이드와 제조 AI 연구 현황을 듣고, AI 기반 안전로봇 실증 현장을 둘러보았다. 2019년 문을 연 안전로봇실증센터는 국내 최초의 안전로봇 실증 시설로, 안전·건설·국방·물류 로봇의 성능과 신뢰성을 시험·인증하고 있다.

KIRO가 자리한 포항은 지난 8월 ‘첨단 AI 로봇’이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되고 로봇 특화단지로도 지정되면서, 포스텍과 KIRO를 중심으로 로봇 연구개발과 제조 현장 실증을 맡게 된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사람이 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 하는 것이 피지컬 AI가 국민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라며, “로봇이 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KIRO와 같은 실증·인증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포스텍] 총장 오찬, 학생들과의 ‘AI NEXT TALK’ 및 ‘피지컬 AI 워크숍’ 참석

오후에는 포스텍 총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AI 시대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포스텍 재학생들과 토크콘서트인 ‘POSTECH AI NEXT TALK’를 열고 격식 없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망하다는 말을 믿고 신설 학과에 진학했는데 졸업할 즈음 기술 흐름이 바뀌면,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한 학생의 우려에,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인재 양성은 당장의 유행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우려를 정책에 꼼꼼히 담겠다”고 답하였다.

“새 학과를 만드는 것보다 학부생이 AI 서비스나 GPU 같은 최신 도구를 직접 써 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학부 때부터 기초와 함께 최신 기술을 마음껏 써 본 경험이 판을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연산 자원과 AI 서비스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연구부터 창업까지 청년 AI 인재를 종합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스텍 ‘피지컬 AI 워크숍’을 찾아 축사를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계·컴퓨터·전자전기·산업경영 등 여러 학과의 역량을 모아 피지컬 AI 공동 연구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스텍 교수와 창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피지컬 AI는 한 분야의 기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여러 학문이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학과 간 협력으로 쌓은 연구 성과가 KIRO 등 지역의 실증 기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명산단] 포항 Neo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의 포항 Neo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경상북도로부터 추진 현황을 들었다. 이 데이터센터는 1단계로 총사업비 6,000억 원을 들여 수전용량 40MW 규모의 GPU

기반 수냉식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으며,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올해 8월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9호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향후 단계적으로 총 300MW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강원부터 대구·경북까지 이어진 나흘간의 현장 일정을 마치며 “AI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에 토권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고, 그 토권이 철강·로봇 같은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청년부터 기업까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강원·대구·경북 방문에서 들은 현장의 의견을 AI 인프라, 인재 양성, 청년 AI 정책 등 관련 정책에 참고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 인프라지원팀	책임자	팀 장	민자영 (02-2224-4181)
		담당자	사무관	김중훈 (02-2224-4183)
		담당자	사무관	유승희 (02-2224-4189)

